

# 치솟는 유가에 OPEC 증산 검토

〈석유수출국기구〉

## 산유국들 다음달 회의서 결정

## 2주 연속 배럴당 80달러 돌파

## 이란·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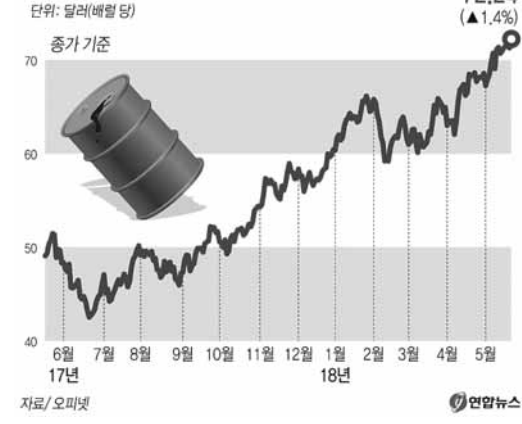
이란과 베네수엘라 원유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산유량 증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OPEC과 석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OPEC의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 생산을 늘릴 수 있는지, 회원국들이 각각 얼마나 많은 양을 늘릴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초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 저지를 위해 공급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생산량을 하루 18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과잉 재고량은 OPEC 목표치에 근접하게 떨어진 상태다.

베네수엘라에서 경제 위기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도 산유량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시켰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6월 회의에서 증산을 결정

## 서부텍사스산원유가 추이



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면서 증산량이 얼마나 될지 특정한 숫자가 거론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러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이 합의해 준수하고 있는 공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음 달에 공급 제한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3~4개월이 걸릴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다른 OPEC 관계자 역시 6월 회의의 증산 안에 대해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산업개발 부 장관은 이번 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러시아 및 OPEC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측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그동안 OPEC이 목표치에 근접한 비축량, 유가 상승이 원유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어 산유량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기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계속되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달 고구야 비판 발언 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란 요인들로 국제 유가는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소식이 전해진 후 22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7월물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장중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 중 왕이, 북미회담 의논하러 미국 방문



왕이 외교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변심에 대해 중국 배후설을 제기한 가운데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교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내는 가운데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책회의’ 성격의 정상회담을 한 직후 왕이 국무위원이 방미한다는 점에서 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한 모종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미국을 경유해 미국 고위급 관리들과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와 북미 정상회담의 원활한 성사를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루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이 국무위원이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친 뒤 귀국 도중 23일 미국 워싱턴을 경유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미 양국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워싱턴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북미 정상회담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가운데 이뤄져 그가 트

럼프 대통령을 접견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간 이견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남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본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엔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북한이 최근 강경 태도로 돌아선 것이 지난 7~8일(한국시간)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른바 ‘시진핑 배후론’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의식에도 중국은 북한 노동당 ‘친 선 참관단’을 초청해 극진한 환대 속에 지난 14일부터 베이징, 시안, 상하이, 저장성 등을 경제 발전 현황을 참관하게 하고 대규모 경협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



美 비행기 온두라스서 추락... 탑승자 전원 구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발해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소형 민간 제트기 한 대가 22일(현지시간) 활주로 끝 부분에서 추락해 두 동강이 났지만 6명이 부상 당하고 나머지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 화만 키운 페이스북 정보유출 해명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22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지도자들에게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커버그가 원하는 질문만 골라서 답하면서 민감한 사안은 오히려 피해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커버그의 22일 증언 때문에 유럽의회 지도부가 당혹해 하면서 화가 났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저커버그의 의회 증언이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저커버그의 증언은 의회 지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저커버그가 질문을 피해 다녔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폴린스 영국 의회 디지털 문화 미디어-스포츠 위원회 의장은 “저커버그는 질문의 요

지에 답하지 않은 채 답변을 ‘체리-픽’(cherry-pick,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는 행동)했다고 비난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선거를 도운 영국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유럽 고객 270만명을 포함해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해명했다.

그는 연설에서 “선거에 외국세력이 끼여들어 방해하거나, 개발자들이 이용자 정보를 오용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은 실수였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 마두로, 금융제재 반발 미 외교관 추방

베네수엘라가 자국의 대선 직후 취해진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에 반발,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했다. 또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 범죄”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도 카리카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당선증 수여 행사에서 “토드 로빈슨 미 대사 직무 대행과 선임 외교관인 브라이언 나랑호가 군사적인 음모에 연루된 만큼 48시간 내 출국을 명령했

다”고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그간 군사, 경제, 정치 문제에 개입해 왔다”며 “조만간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상대국에서 대사를 철수시킨 2010년 이후 서로 대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대사 추방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추방이 확인된다면 미국은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10명 사망’ 텍사스 총격범 경찰과 25분간 교전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산타페 교고에서 일어난 총격에 대응한 경찰이 총격범 디미트리오스 파구어티스(17)와 25분간 총격전을 벌였다고 현지 트로체체 캄버스턴 카운티 경찰국장이 22일 밝혔다.

NBC 뉴스에 따르면 트로체체 국장은 사건 브리핑에서 “10명의 희생자 가운데 경찰과 총격범 사이의 십자포화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

고 있다. 정확한 것은 부검이 완료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로체체는 “우리 쪽, 경찰관 쪽에서 발사된 탄환은 최소한도였다. 총격범은 경찰들을 겨냥해서 계속 쏘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학교 지원 경찰관은 총격이 있고 4분 만에 희생자들이 나온 미술교실에 나타났으며, 곧바로 총격범과 교전했다고 트로체체 국장

은 말했다.

학교 지원 경찰관인 존 반스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파구어티스는 아버지가 소유한 레밍턴 870 연총과 38구경 로시 리볼버(회전식 연발 권총)를 난사해 학생 8명과 교사 2명 등 10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중 처벌 살인)로 캄버스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파구어티스는 또 학교 곳곳에 크리켓밤이라고 불리는 사제폭탄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총격범의 병행동기를 확실히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고 NBC 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 상가원룸매매(신축)

▣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10개) (투룸 2개)  
4층 (최고급 주택) 전방최고!!

▶ 매가 9억5천만

- ①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 16개) 월세 580만 ▶ 매가 8억2천
- ② 월곡동시장 2분 (4층 원룸상가)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5천만
- ③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3억5천만가능)

062-382-5500 010-6670-9800

## 상가 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23평 (투룸형)  
보 5백 월 45만

시세 1억  
매가 7천5백만

- ① 상무지구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보5백 월40만) ▶ 시세 8천만-매매가 7천만
- ② 월산동 3층상가건물, 무등시장 1분 (코너) 보1억4천 월900만 (용 7억) ▶ 매가 22억
- ③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매가 9억
- ④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친위역 5분 (고덕신도시 7분!!) 1필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⑤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산정동) 코너 총 16개 (상가개) ▶ 매매가 3억5천만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상가빌딩(추천)      토지 추천

- 1) 서구 쌍촌동 (3층상가주택) 토 90평 건 107평 ▶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2)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토 128평 건 406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5억9천
- 3)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 (월수익 5,000만 예상) ▶ 감정가 37억 → 최저가13억4천
- 4) 서구 금호동 (7층중 7층상가) 토 54평 건 89평 대단위아파트 위치 ▶ 감정가 6억 → 최저가 3억3천
- 5) 광산구 지산동 320평 신인파크분 (2차선 도로접) ▶ 감정가 2억2천 → 최저가2억2천
- 6) 장성군 유양리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
- 7)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1천 → 최저가 7천9백
- 8) 북구 문흥동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 9) 동구 학동 102평 ▶ 감정가 1억5천 → 최저가 8천5백
- 10) 동구 지산동 (임야) 176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11) 서구 화정동 105평 ▶ 감정가 8천 → 최저가 5천6백

근린상가/빌라/속박시설      A.P.T, 주택      공장/기타

- ① 상무지구 세정마을(8층)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800만
- ② 남구 백운동 (빌라)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3억2천
- ③ 북구 신안동 (6층 속박시설)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2천
- ④ 북구 용동동 (2층중 7층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2억9천9백
- ⑤ 남구 주월동 (미토) 토 108평 건 83평 감정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 ① 서구 동명동 우미공영아파트 69평 감정가 1억6천 → 최저가 1억1천
- ② 광산구 신정동 신정아파트222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1천
- ③ 남구 주월동 (주택) 토 40평 건물 40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④ 광산구 새들동 (주택) 토 52평 건물 232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1억
- ⑤ 광산구 도산동 (주택) 토 60평 건물 232평 감정가 7천3백 → 최저가 7천
- ① 광산구 월정동 (공장) 토 2,220평 건물 1,200평 감정가 6억 → 최저가 38억
- ② 전남 보성읍 폐상리 (공장)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2억7천7백
- ③ 광산구 월정동 (공장) 토 126평 건물 80평 감정가 34억 → 최저가 34억
- ④ 전남 고흥군 동강면 (공장) 감정가 14억 → 최저가 6억
- ⑤ 전남 화순군 향남리 (농동침고) 감정가 7억6천 → 최저가 5억3천

010-7384-7800      010-6670-9800

## 경매 교육 (5월초 개강)

① 기초실전반 (경매기초 + 기본실전)

② 실전투자반 (기초 + 실전 - 매매까지)

③ 무료반응 → (오전-오후)

기초이론부터~실전투자 리모델링,매매까지 (원스톱강의)

직원구함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십시오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 컴퓨터, 교육(무료제공)

010-6670-9800